

『蓬萊酬唱錄』(附「東萊府治圖」)에 관한 일고찰

이 현 주*

< 차 >

- I. 머리말
- II. 『蓬萊酬唱錄』의 구성과 편제
- III. 「東萊府治圖」 분석과 회화적 특징
- IV. 『蓬萊酬唱錄』 내용
- IV. 맺음말

국문요약

『蓬萊酬唱錄』은 1725년 음력 3월 동래부사 趙錫命이 주관하여 여러 智人들과 동래부에서 수창한 시문을 그림과 함께 장황한 총 35장의 서화첩이다.

서화첩 구성은 권두에 접위관 洪晟이 大字로 蓬萊, 酬唱이라 題名을 쓰고 다음 장에는 「東萊府治圖」를 배치하였으며, 다음으로 星州의 문사 鄭錫儒가 지은 <蓬萊酬唱錄序>가 있다. 그 뒤로 당시의 동래부사 조석명이 지은 책 제목에 가능하는 권두사에 해당되는 <題詞>를 두었고, 이어 본문에 해당되는 조석명, 정석유, 洪晟, 趙駿命, 범어사 승려 存覺이 지은 시문 55수를 李仲寬이 행서로 필사하였다. 卷末은 홍성이 짓고 쓴 <後記>가 장황되어 있다.

1725년(영조 1)년 당시의 동래부사 조석명은 나이가 52세로 이 벼슬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여러 날에 걸친 酬唱詩를 서화첩으로 묶어 후일 동래에서의 일을 回憶하고 破寂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며 또한 네 집안의 자제들이 뒷날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봉래수창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래부지도」이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동래부 관련 그림들이 후기동래읍성을 배경으로 제작된 반면 이 그림은 1731년 정언섭의 후기읍성 축조 이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묘사된 관아시설과 주변지형의 공간배치는 상당히 정확하고 사실적이다. 묘사된 동래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부 내의 관아시설이 아주 상세하고 화풍에서도 18세기 동래부 무임화사계열의 화풍이 엿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그림의 주문자가 동래부사였다는 점을 감안 해볼 때 이 그림의 제작자는 동래부 무임화사일 가능성이 크다.

『봉래수창록』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제를 덧붙여 고찰하였다. 이 작품은 18세기 동래지역에서의 수창교유와 시화첩의 제작배경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동래부 화사를 발굴할 중요한 사료이다.

주제어 : 봉래수창록, 동래부치도, 정석유, 조석명, 동래부 화사

I. 머리말

蓬萊는 동래의 옛 지명으로 동래를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史記』, 『列子』 등에서 비롯된 三神山은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인데 봉래산이 가장 으뜸 산으로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 동래 지방은 예로부터 신선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곳으로 현재의 동명에도 瀛洲洞, 神仙洞, 仙洞 등의 지명이 남아 있으며, 謙孝仙人이 노닐었다는 謙孝臺, 金龜仙人이 살았다는 蘇蝦亭, 더불어 神仙臺가 잘 알려져 있다. 또 동래부의 객사 명칭도 蓬萊館으로 되어 있으며, 동래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를 두고 蓬萊八詠이라 이르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제140회 서울 Auction 미술품 경매에서 『蓬萊酬唱錄』이라는 신수 자료가 소개되었다. 『봉래수창록』은 ‘조선후기 동래부 객사인 봉래관에서 조백승, 정석유, 홍성, 조중명 등이 시문을 주고받은 내용을 당시 봉래관을 그린 그림과 함께 곁들인 것으로, 조석명이 뒷날 동래부사로 재직하던 한 때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설되고 있는 서화첩이다.’¹⁾ 시문과 함께 수록된 「東萊府治圖」는 시문을 나누었던 동래부치의 공간을 회화식지도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²⁾

『봉래수창록』은 시회장소의 序文과 後記, 기록적 회화, 시문내용 등 일반적인 수창록 또는 계획도첩의 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래부 지역사 및 회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봉래수창의 참여인사들이 당시 동래부와 관련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된 글의 내용이 봉래관뿐만이 아니라 靖遠樓, 多大待變樓, 忠烈祠, 草梁道中, 永嘉臺, 梵魚寺 등 부산·동래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망라한 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해설서에서 봉래수창록을 만든 ‘목적은 조석명이 뒷날에 동래부사로 재직하던 한 때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跋文에서 밝혔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이 수창록에는 발문을 대신하는 後記가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사절을 접대하기 위해 중앙 관서에서 파견된 接慰官 洪晟이 지은 것으로 당시의 동래부사 趙錫命이 이를 장황하게 한 것임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함께 收載된 「동래부치도」에는 동래부의 관아시설은 물론 주요건물과

¹⁾ 『제140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스페이스, 2016.

²⁾ 『蓬萊酬唱錄』에 수록된 이 그림은 객사인 봉래관을 중심으로 한 동래부 관아시설과 그 주변경관을 그린 것으로, 후술하겠으나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후기읍성이 축조되기 이전이며, 읍성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 그림의 제목을 「東萊府治圖」라 명명하였다.

지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의 동래읍성이 수축되기 전의 동래부의 사정을 상세히 밝혀주는 자료로 회화사적 의미가 지대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새롭게 발견된 『봉래수창록』의 구성과 참여문사들의 성격을 살펴 수창록의 편제 및 제작목적에 파악한 후, 함께 수록된 「동래부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알려진 대다수의 동래부지도와 기록화들이 후기읍성을 쌓기 전의 동래부 구조와 관아시설 등을 묘사하고 있긴 하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동래부지도」는 여타 작품들과 달리 객사와 별관, 식파루는 물론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충렬별사, 동래향교, 새로 축조되기 전의 廣濟橋 및 三姓臺 등의 지형이 세세히 묘사되어져 있는 바, 각 묘사건물에 대해 『東萊府志』 등의 기록 및 현존하는 동래부지도 등과 비교분석하여 각 묘사대상의 명칭을 규명하고자 한다.³⁾

그리고 「동래부지도」를 그린 화가에 관해서도 추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감영, 병·수영의 자비대령화원으로 화사군관이 배치되는 것과 같이 동래부도 1655년(효종 6)에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영 휘하 경주진관에서 독립하여 동래부가 양산군, 기장현의 군사를 직접 관할하는 東萊獨鎭이 되어 이때부터 감영, 병·수영에 준하는 화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⁴⁾ 또한 논급하기에

³⁾ 동래부 군현지도에 관한 연구는 김기혁,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과 내용 분석」, 『한국민족문화』 제19·20호,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10; 김기혁·김성희,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경관과 변화 연구」, 『부산지역연구』 제10권,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2004, 27~49쪽; 김기혁·윤용출 외,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 -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0호, 대한지리학회, 2005; 김기혁, 「지역연구 자료로서의 부산지역 고지도 기초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등이 있다.

⁴⁾ 조선후기 지방과건화원과 동래부 무임화사에 관한 연구는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Vol.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이현주, 「조선후기 통제영 화원 연구」, 『石堂論叢』 제3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7;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과건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제14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12; 이현주,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18세기 東萊 在地畫員 卞璞의 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 제14호, (재)동아시아문화연구소학술재단, 2008; 박은순,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이현주, 「지역이미지로서의 동래부 임진전란도-1834년작 변곤의 <동래부순절도>와 이시눌의 <임진전란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7,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_____, 「동래부 화원 李時訥 연구」, 『역사와 경계』 76호, 부산경남사학회, 2010; _____,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화원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동철, 「東萊府使接倭使圖의 기초적 연구」, 『역사와 세계』 37, 효원사학회, 2010.6, 69~103쪽; 박성희, 「조선후기대일교역용회화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2010; 홍선표, 「화원의 형성과 직무 및 역할」, 『화원-朝鮮畫員大展』, 리움, 2011; 이현주,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활동과 회화적 특성」, 『역사와 경계』 83호, 부산경남사학회, 2012; 이성훈,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전반 동래지역화단」, 『미술사학연구』 제278호, 한국미술사학회, 2013 등이 있다.

무리한 부분일 수 있으나 동래가 獨鎭으로서 군사적 독립권한을 지녔을 때 감영, 병·수영의 寫字'官과 같은 군관이 존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없으나 글씨를 쓴 인물에 대하여도 考究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봉래수창록』의 시문에 관해서는 여타 문집에 아직 확인되지 않고 새로이 소개되는 내용이라 본고에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덧붙이고자 한다. 行草식의 글씨에 익숙하지 못하고 시문의 平則에 미숙한 까닭에 시문의 소개에는 다소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선학들의 叱正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봉래수창록』의 정확한 성격과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동래 지역사 및 동래관련 회화연구에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⁵⁾

II. 『蓬萊酬唱錄』의 구성과 편제

1. 서화첩 구성

『봉래수창록』은 45×32.4cm 크기의 종이에 수묵 글씨 59점과 38.5×26cm 크기의 지본담채의 그림 1점으로 구성된 서화첩으로⁶⁾, 양면으로 펼치진 면이 모두 35장에 해당된다.

서화첩의 표지는 청색의 비단으로 장황하였으며, 외곽의 邊周에는 붉은 색지의 띠를 두르고, 題籤은 黃紙에 별도로 「蓬萊酬唱錄」이라 써서 붙였다.(도 1)

1장의 1면과 2면에는 大字로 두 자씩 ‘蓬萊’, ‘酬唱’이라 題名을 쓰고(도 2), 다음으로 2장에는 「동래부치도」를 양면에 가득차게 배치하고(도 3), 3~6장에는 鄭錫儒가 지은 <蓬萊酬唱錄序>가 기록되어 있다.(도 4) 7장부터는 당시의 동래 부사 趙錫命이 동래부의 동헌인 忠信堂에서 쓴 <題詞>가 수록되었고, 13장부터는 趙錫命의 題詞를 두고 趙錫命(1674~1753), 鄭錫儒(1689~1756), 洪晟(1702~1778), 趙駿命(1677~1732)과 범어사 승려 存覺 등이 지은 시문 54수를 56페이지에 걸쳐 행서로 필사하였으며 마지막 양면은 洪晟이 지은 <後記>가 실려 있다. 가필이나 보정은 없으며 당시의 장황상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⁵⁾ 『봉래수창록』의 원문의 교정과 해석은 서예가 석정 김성균 선생과 경성대 한문학과 정경주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신수자료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 준 서울옥션과 원문 교정을 도와주신 두 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⁶⁾ 작품규격은 『제140회 서울옥션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스페이스, 20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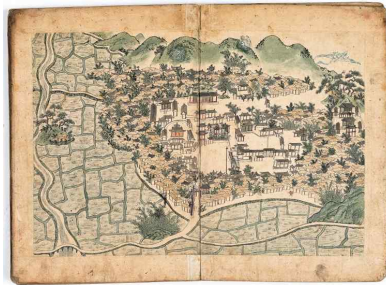
으로 추정된다.



도 1. 『봉래수창록』, 1725년, 개인



도 2. 『봉래수창록』題名, 45×32.4cm, 개인



도 3. 「동래부치도」, 지본채색, 38.5×26cm, 개인



도 4 『봉래수창록』, 序 45×32.4cm, 개인

바탕종이는 詩箋紙로 꾸며져 잠자리, 학, 소를 탄 동자, 소나무와 매미, 국화, 대나무 등의 문양이 확인된다. 시전지는 펼쳐진 면 右上段에는 학과 잠자리가 작은 형태로 18면이고, 右下段에는 상단보다 큰 형태의 소를 탄 동자와 소나무와 매미, 국화, 대나무 등 화훼문양이 16면이다. 시전지 문양의 색은 대체로 청색인데, 잠자리만은 고추잠자리인 듯 붉은 색으로 찍혔다. 다만 12개의 잠자리 가운데 1개만 청색으로 찍혀 예외가 있다. [표 1]

각 면에는 여러 형태의 遊印으로 고동기화병, 주병, 향로 등을 찍기도 하였으며, 6종 7과가 주문 방인을 款識하여 帖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주문 방인은 정확히 판독되지 않으나 그 중 하나는 동래부사 조석명의 시에 [東萊大府之章]이라는 양각 방인의 확인되며 시문에 참여한 홍성의 字인 [光國]의 음각 頭

印이 판독된다. [표 2]

표 1. 『봉래수창록』 시전지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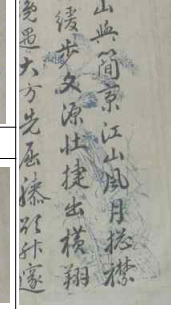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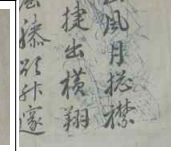


				
소를 탄 목동	학			
				
잠자리(朱色)	잠자리(靑色)			
		괴석, 화훼, 초충	화훼	화훼

표 2. 『봉래수창록』 수록 인장

인장위치	관련인물	인장종류			
題名 大字 1장	洪晟[光國]				
蓬萊酬唱錄序 3~6장	趙錫命[伯承]				
題蓬萊酬唱錄後 35장	洪晟[光國]				

2. 참여문사

『봉래수창록』에 참여한 인물은 1724년(경종 4) 8월에 司憲府의 執義를 역임하다가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725년(영조 1) 5월에 전직인 대간 때의 일로 파직 당한 조석명과 嘉月(음력 3월)에 왜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동래부에 파견되어 온 접위사(접위관) 홍성, 이곳에 들른 정석유, 조준명 4인과 존각이라는 범어사 승려1명이 주고받은 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서문에서와 같이 嘉月(음력 3월)

에 제작하기 시작하여 홍성의 <後記>가 淸和節(음력 4월) 상순에 쓰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장황된 것으로 보인다.

<序文>과 <後記>를 통해서는 조석명, 정석유, 홍성, 조준명 4명의 酬唱 계기와 酬唱錄의 제작목적이 확인된다.

조석명은 영조년간의 문신으로 본관은 豊壤, 자는 伯承, 호 墨沼이며,⁷⁾ 1724년(경종 4) 8월 2일 동래부사에 제수되었다.⁸⁾ 조석명이 1724년 8월 당시 나이 50세로 동래부사에 제수되었으니 1725년 3월은 동래부사에 부임하여 지방정세를 어느 정도 파악한 시점일 것이다. 조석명은 임명된 후 경상도내 文章의 鉅擘을 수소문하니 혹자가 ‘蓬山の 鄭錫儒의 명성을 전해주었는데 만날 길이 없었다. 그런 참에 을사년 봄 정석유가 동래에 불일이 있어 조석명을 찾아오게 됨으로써’⁹⁾ 두 명의 詩文唱和가 시작되었다.

정석유는 영조시기 星州의 문사로 자는 仲珍이며, 호는 杏隱이고 본관은 동래이다.¹⁰⁾ 정석유는 당시 37세로 성주에서 불 일이 있어 동래에 잠시 들른 시기에 동래부사를 조석명을 만났다. 그는 과거급제는 했으나 피치 못하게 재야에 머물고 있긴 하였으나 문장의 기개는 뛰어난 인물이었다.

7) 趙錫命(1674~1753)은 趙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相鼎이고, 아버지는 大壽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徐文重의 딸이다. 1707년(숙종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13년(숙종 39) 암행어사로 강원도 등 여러 도에 파견되었고, 홍문관을 포함하여 삼사의 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 1728년(영조 4) 대사간에 임용되자 바로 수령들의 지난 잘못을 일일이 밝혀 처벌할 것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형조판서를 지냈고,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

8) 『조선왕조실록』 1724년(경종 4) 8월 2일

9) 『蓬萊酬唱錄序』, 『蓬萊酬唱錄』

10) 鄭錫儒(1689~1756)의 증조부는 彦友(武科, 僉正)이고 조부는 昌業이며 아버지는 진사인 弘鑑이다. 花山의 鄉試에서 訥隱 李光庭이 2등으로 합격할 때 1등을 차지했으며, 1737년(영조 13) 별시에서 殿策으로 3등으로 급제 하였다. 1748년(영조 24) 조선통신사의 戊辰使行에 製述官으로 선발되었으며 1753년(영조 29) 良才察訪을 역임하였다. 부모를 위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현실에 막혀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 문장과 시에 뛰어나 당시에 뛰어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벼슬은 높지 못하였으나 당대의 명사들과 폭 넓게 교류하였다. 저술로는 『洛下集』 1책, 『杏隱遺稿』 11권, 13권, 『杏隱公年譜』 1책, 『杏隱公日記錄』 1책이 남아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그의 쌓아놓은 학식을 두드려 보았더니 文辭가 마구 쏟아지는데 근원의 물길
이 거대하여 마치 깊은 숲 거대한 골짜기 같이 시세가 웅혼하고 藍田의 옥과 荆
山의 황금처럼 시선을 뺏기도록 기이하고 화려하였다.참으로 文章의 선비이
다.’¹¹⁾

또한 조석명의 <題詞>에 의하면 조석명과 정석유의 아버지는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詩韻을 주고받았던 사이인 즉, 정석유와 조석명은 집안끼리 통하
는 子弟로 이미 집안간의 세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다리던 문사를 ‘신발을
거꾸로 하여 반갑게 맞이한’ 정석유는 그가 머무는 동안 詩韻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홍성이 접위관으로 동래객관에 여러 달 머물게 된다. 조석명
과 홍성은 승정원과 세자시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었는데, 홍성이 접위
사로 동래에 오게 됨에 따라 이들 또한 뜻하지 않은 반가움으로 조우한 것이다.¹²⁾

마지막 조준명은 조석명과 증조부[趙珩]가 같은 再從[6촌]間으로 동래부
로 온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함양군수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동래부에 들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¹³⁾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이렇게 모인 문사들이 酒席사이에서 읊조린 시가 詩

11) 『蓬萊酬唱錄序』, 『蓬萊酬唱錄』

12) 洪晟(1702~1778)은 숙종, 영정조년간 문신으로 본관은 南陽, 자는 光國이다. 증조는 世亨, 조부는 天齡이고, 부친은 知中樞府事 命源이며, 어머니는 李淑의 딸이다. 1723년(경종 3) 增廣試 문과에 별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에 보직되었다가 1762년(영조 38) 司憲府 持平에 올랐다. 이어 司諫院 正言, 사헌부 掌令, 承政院 承旨등 여러 벼슬을 거쳤다. 홍성은 1768년(영조 44) 11월 工曹參議로서 인천 부사에 제수되어 부임하였으나, 1769년 5월 祭筵에 불참한 문신을 파직할 때 함께 파직되었다. 1772년(영조 48)에 加資되어 知中樞府事에 이르러 耆老所에 들어갔다. 시와 글씨에 능하여 문장과 詩詞가 고전적이었고, 만년에 더욱 조예가 깊어져 詩體가 청아하여 古調의 미가 있었으며, 필법 또한 능숙하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英祖實錄』; 『國朝榜目』.

13) 趙駿命(1677~1732)은 숙종, 영조년간 문신으로 본관은 豐壤이며, 자는 慎汝이다. 아버지는 僉正 泰壽이며, 조부는 우의정을 지낸 相愚이다. 사마시에 합격한 뒤 永韶殿 參奉이 되었고, 세자익위사 시직과 호조좌랑을 거쳐 함양군수·청풍부사·능주목사 등을 지냈다.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 이후 청주목사가 되어 피폐한 민심을 잘 다스리고 주린 백성 9,000여명을 구제하여 안정시켰으므로 충청감사와 어사가 褒啓하여 通政大夫에 올랐다. 1731년에는 청주읍성 복문 안에 이인좌의 난 때 희생된 李鳳祥, 南延年, 홍림을 기리는 三忠祠를 건립하였다. 또한 官畝를 개수하고 刑獄을 개축하여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민폐를 제거하는데 힘썼다. 이듬해에는 守城將을 겸직하여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교천(현 無心川) 서쪽 제방을 쌓다가 재입 중에 죽었다. 특히 그는 사람됨이 세심하여 소홀함이 없고, 소송사건을 공명하게 판결하여 명망이 높았으며, 글씨를 잘 써서 篆書·籀書·八分體에 뛰어났고 그림에도 능하였다. 저술 저서로 『桂坊日錄』이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근역서화정』.

軸을 이루자 조석명은 기술자에게 장황을 명하였다. 조석명은 당시 나이가 51세로 벼슬을 그만둘 생각을 가진지 오래되었고 전원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소일거리로 이 서화첩을 보면서 동래에서의 한 때를 회憶하고 과적하기 위하여 수창록을 제작하였고, 또한 교유한 네 집안의 자제들이 뒷날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 외에 마지막으로 한 수를 읊은 존각이란 승려가 있으나 18세기 범어사 승려라는 점 이외에 아직 행장이 확인되는 것은 없다.

한편 次韻에 앞서는 원 시문을 지은 이는 放翁 陸游(南宋, 1125~1210), 東岳 李安訥(1571~1637), 來初 李仁復(1683~1730) 등인데, 이안눌은 봉래 수창에 참여한 인물보다 5~6세대 앞서는 대문호였으며,¹⁴⁾ 이인복은 서로가 알 수 있는 당대 인물들이었다.¹⁵⁾ 방옹은 우리나라에서 象村 申欽(1566~1628)의

14) 李安訥(1571~1637)은 조선중기 문인으로 본관은 德水, 자는 子敏, 호는 東岳. 좌의정 李荇의 증손이다. 조부는 元禎이고, 부친은 진사 洵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로 大護軍 李暘의 딸이다. 재종숙부인 사헌부감찰 李泌에게 입양됐다. 한문4대가의 한 사람인 澤堂 李植의 從叔이다. 이안눌은 18세에 진사시에 수석 합격하였으나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관직에 나갈 생각을 버리고 오직 문학 공부에 열중했다. 동년배인 權鐸과 선배인 尹根壽·李好閔 등과 교유를 맺고 東岳詩壇을 구축하였다. 29세 되던 해인 1599년(선조 32) 다시 과거 시험을 봐 문과에 급제했으며 이후 여러 言官職을 거쳐 예조와 이조의 정랑으로 있었다. 1601년(선조 34)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 成均直講으로 옮겨 奉朝賀를 겸했다. 공조로 옮겼다가 主試官으로 호서와 관서 지방에 나갔다가 다시 예조에 들어온 후 단천군수가 됐다. 1607년 홍주목사·동래부사를 거쳐 1610년 담양부사가 됐다. 부사가 된지 1년 만에 병을 이유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3년 후에 경주부윤이 됐고 호조참의 겸 승문원부제조로 임명됐다. 이후 강화부사,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고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학을 거쳐 충청도순찰사에 제수됐다. 그는 작품 창작에 최선을 다하여 문집에 4,379수라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겼다. 杜甫의 시를 만 번이나 읽었다고 하며 시를 지을 때에 하나의 글자도 가볍게 쓰지 않았다고 전한다. 특히, 唐詩에 뛰어난 李太白에 비유됐고 서예 또한 뛰어났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지은 『東萊四月十五日』은 전쟁의 상처를 형상화한 내용으로 사실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저서로는 『東岳集』 26권이 있다. 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 겸 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에 추증됐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15) 李仁復(1683~1730)은 숙종·영조년간 문인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來初, 호는 春節齋. 영의정 元翼의 5대손이며, 守約의 증손으로, 조부는 象賢이고, 부친 대사간 存道이며, 어머니는 權頤의 딸이다. 1705년(숙종 31)에 진사가 된 뒤 문음으로 入仕하여 1708년 하양현감이 되었으며, 그 뒤 경상도 도사로 재직 중 1714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716년 弘文錄·都堂錄에 차례로 뽑히고, 이듬해 비변사로부터 御史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뽑혔으며, 그해에 부수찬이 되었다. 1718년 수찬이 되고, 1721년(경종 1)에는 승지에 올랐으며, 이어서 형조참의를 거쳐, 1724년에 동부승지·사직이 되었다. 이 때 경종이 죽자 왕대비의 服制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는 3년 斬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1727년(영조 3) 공조참의에 이어서 예방승지를 거쳐 1729년 병조참판에 올랐다. 이인복은 남인계의 신진 지식인으로 許穆을 영수로 하는 門外派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또한 吳光運, 姜樸, 姜必愼, 李重煥 등과 白蓮詩社를

다른 호이기도 하며 그의 시조집이 『放翁詩餘』로 남아 전하기는 하나 그의 문집은 『象村集』, 『野言』으로 『放翁集』이라는 이름으로는 서책이 없는 실정이다. 신흠은 月象溪澤이라 하여 月沙 李廷龜(1564~1635), 溪谷 張維(1587~1638), 澤堂 李植(1584~1647)과 더불어 한문4대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만약 이 사람이 동래에 와서 시를 남겼다면 반드시 동래의 『題詠雜著』에 그 시가 남아 있을 것인데 현재 남아 전하는 시가 전무하며, 동래에 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그의 관력이나 행장을 종합해 볼 때 申欽은 아닌 것으로 추론된다.

이 『放翁集』은 南宋 말기 철저한 항전주의자로 약 50년 동안에 1만 首에 해당하는 시를 남겨 중국 詩史上 최다작의 시인으로 꼽히는 陸游의 시집으로 추정된다. 『放翁集』은 남송말 羅倚와 元나라의 劉辰翁(1234~1297)이 각각 남송 때 시인 放翁 陸游의 시를 뽑아 놓은 것을 함께 합한 책이다. 전후 두 시집은 원래는 아무 관련 없이 편집된 것인데 元代의 서적상들이 합편하여 한 책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蘇東坡와 함께 방옹의 시를 숭상하여, 『放翁集』의 여러 가지 전집 또는 선집이 나왔는데 그 중의 하나로 보인다.

Ⅲ. 『東萊府治圖』 분석과 회화적 특징

1. 묘사대상 분석

이 그림은 『봉래수창록』 2장에 수록된 것으로 동래의 후기읍성이 쌓여지기 전의 東萊府治의 주요시설과 지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회화식 지도이다.¹⁶⁾ 『東萊府志』와 『忠烈祠志』 등의 관련기록과 현존하고 있는 여러 점의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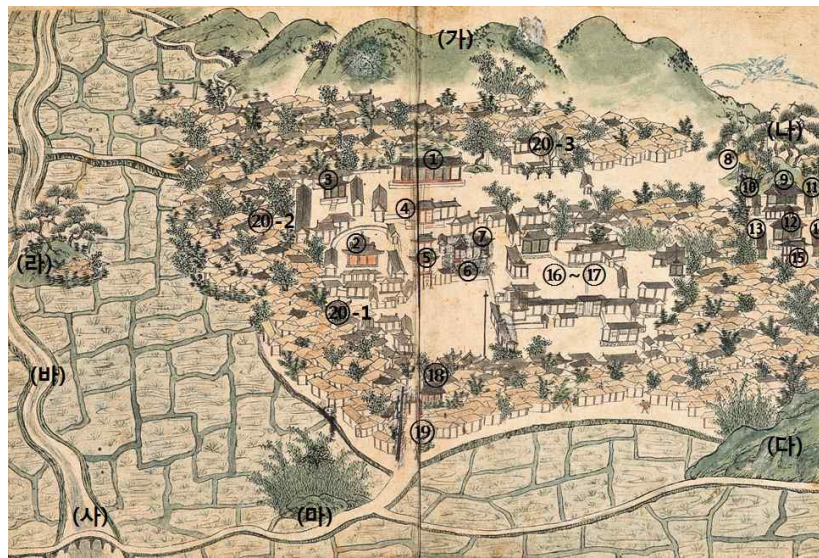
결성하였다. 이인복과 백련지사 동인의 山水愛好 사상은 자연이란 단순하게 벗 삼아 즐기는 여가와 흥취의 장소가 아니라 선비들이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의탁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면에는 진정한 선비의 몸가짐이란 마음은 세속에 있으며 몸을 즐기는 산수가 아닌 몸과 마음 모두 세속과 거리를 두는, 또는 몸은 세속에 있어도 마음만은 세속을 벗어나는 自然觀의 세계를 잘 보여 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왕조실록』.

¹⁶⁾ 조선시대 동래읍성은 임진왜란이후 폐쇄했던 성을 1731년(영조 7)부사 정언섭이 수성하였는데 이 때 쌓은 읍성이 둘레 17,291척, 여장 1,318타, 서문, 남문, 암문이 있고, 중요한 문부였던 남문에는 익성을 두고문은 전문(洗兵門)과 후문(朱鳥門)의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서문, 암문, 북문밖에는 옹성을 부설하였다. 성내에는 수성창, 수첩청을 두어 수성의 임무를 맡게 하였다. 이후 1735년 각 5칸으로 된 보루 15개소와 인화문을 건립하였고, 1740년에 남문 및 문장청을 개창하였다. 그 후 1870년 동래부사 정현덕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다시 성벽과 문루를

래부 회화식 지도에 명기되어 있는 건물명과 지명 등을 비교하여 「동래부지도」에 묘사된 건물과 지형 등의 명칭을 비정해보았다.(도 5)

표 3. 「동래부지도」에 묘사된 건물명 및 지명

분 류	명 칭
건물명	① 객사[蓬萊館] ② 동헌[忠信堂] ③ 官廳 또는 接慰廳 ④ 내아[緩帶軒] ⑤ 息波樓 ⑥ 蓮亭 ⑦ 晦息堂 ⑧ 石水庫 ⑨ 大成殿 ⑩ 西廡 ⑪ 東廡 ⑫ 明倫堂 ⑬ 西齋 ⑭ 東齋 ⑮ 南樓 ⑯~⑰ 鄉廳과 州司 ⑱ 忠烈別祠 ⑲ 홍살門 ⑳-1 忠信堂 남쪽 관아시설 ⑳-2 忠信堂 서쪽 관아시설 ⑳-3 軍器庫
지명 및 산수	(가) 馬鞍山 (나) 甌山 (다) 萊山 (라) 三聖臺 (마) 弄珠山 (바) 梵魚川 (사) 廣濟橋



도 5. 「동래부지도」의 지명 및 관아위치, 『蓬萊酬唱錄』, 지본채색, 38.5×26cm, 개인

묘사된 동래부치의 건물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 ①은 객사인 蓬萊館으로 총39칸으로 전패를 안치하고 초하루 보름에 망배를 드리는 곳이다. 正廳은 1618년(광해군 10)에 부사 尹民逸이 세우고 1629년(인조 7)에 부사 柳汝恪이 다시 지었으며 1646(인조 24)에 부사 閔應協

수축하였다. 『東萊邑城』, 동래구청·동래문화원·경남문화재단연구원, 2008, 25쪽.

이 重創하였다. 그 후 1703년(인조 29) 동래부사 李櫛 재직 시에 불이 난 것을 1705년(숙종 31)에 부사 黃一夏가 다시 세운 것이다. 동쪽은 寅賓軒, 서는 秩成軒으로 빈객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1705년(숙종 31)에 부사 黃一夏가 중건한 것이다.¹⁷⁷⁾

②는 동헌인 忠信堂으로 총 10칸이며 대문과 東翼廊, 西翼廊, 외대문, 동중문, 內行廊, 馬廐등을 갖춘 동래부사의 집무 공간이다. 이 건물은 1636년(인조 14) 부사 鄭良弼이 세운 것이다.¹⁸⁷⁾

③은 官廳 또는 接慰廳이다. 객사의 서쪽에 위치한 관아로는 別館과 教鍊廳이 있으며, 동헌의 북쪽으로는 관청과 접위청이 있었다. 별관은 객사나 동헌의 사용이 어려울 때 별도로 쓰는 건물로 객사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그런데 별관은 1605년(선조 38)에 부사 尹暄이 세우고 1632년(인조 10)에 부사 洪璽과 1672년(현종 13)에 부사 李夏가 중창하였으며, 1705년(숙종 31)에 부사 黃一夏가 다시 중건한 것으로 크기가 4칸이어서 그림에서의 비율을 볼 때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教鍊廳도 객사의 서쪽으로 6칸에 대문 1칸이며 1677년(숙종 3)에 부사 李馥이 건립하였으며 1706년(숙종 32)에 부사 黃一夏가 鄉廳터와 맞바꾸어 옮겨 지은 것으로 이 역시 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충신당 북쪽에 위치한 건물로는 관청과 접위청이 있다. 관청은 座起廳 3칸, 東庫 7칸, 西庫 13칸, 北庫 13칸, 南庫 10칸을 갖춘 건물로 1613년(광해군 5)에 부사 尹守謙이 座起廳을 세우고 1631년(인조 9)에 부사 洪璽이 東庫를 첨가하여 짓고, 1635년(인조 13)에 부사 鄭良弼이 좌기청을 중창하고, 1651년(효종 2)에 부사 尹文舉가 北庫를 짓고 1652년(효종 3)에 부사 任羲伯이 다시 좌기청을 중창하고 1669(현종 10)에 부사 鄭皙이 東庫를 添造하고 1672년(현

177) 十二 官舍 蓬萊館 三十九間 卽客舍也 東日寅賓軒 西日秩成軒 在忠信堂北 未知創於何年 而孝見先生案 則萬曆壬子 府使成晉建東上房 戊子 府使尹民逸造正廳 崇禎己巳 府使柳·汝恪造正廳 西軒 中門 大門 公須 仁祖丙戌 府使閔應協重創 東上房云 似是皆重創也 肅宗癸未 府使李在任時失大 乙酉 府使黃一夏重創○詩見下 大門 三門 左右挾門 各一間 行廊 六間 北公須 八間, 『東萊府志』, 『항도부산』 제1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2, 103~104쪽.

187) 『東萊府志』, 106쪽; 동헌은 조선시대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던 곳으로 일면 衙軒이라고도 하였다. 정3품 당상관인 부사가 재임하던 곳으로 관방으로 대외외교상 중요시되었던 곳으로 관아도 다른 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격식이 높았다. 1636년(인조 14)에 창건되었으며, 1711년(숙종 37) 忠信堂이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한다. 원래는 3칸의 대문, 동익랑, 유포고, 형장고, 서익랑 등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대문과 동헌만 남아있다. 동헌은 정면7칸, 측면4칸의 겹처마 단층 팔작지붕의 익공식 건물로, 세벌의 장대석 기단을 쌓고 원형의 초석을 놓은 후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東萊邑城』, 동래구청·동래문화원·경남문화재단연구원, 2008, 29쪽.

중 13)에 부사 李夏가 南庫를 添造한 것이다.

접위청도 충신당 북쪽으로 5칸이며 1672년(현종 13)에 부사 李夏가 건립한 것이다. 규모나 크기로는 관청일 가능성이 높으며 홍성이 접위관으로 온 것으로 볼 때는 접위청일 가능성도 있다.

④는 동래부사가 기거하는 숙소로 內衙인 緩帶軒으로 충신당의 북쪽에 위치하며 8칸이다.¹⁹⁾ 1636년(인조 14) 부사 鄭良弼이 세우고 처음 이름은 충신당이라 하였는데 1699년(숙종 25) 부사 趙泰東이 완대헌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1701년(숙종 27) 부사 金德基가 芙蓉堂을 헐고 그 부재로 중건한 것이다.

⑤는 息波樓로 6칸이며 객사의 남쪽에 있으며 1629년(인조 7)에 부사 柳汝恪이 객사 봉래관 중건 때 처음 지었으며, 1703년(숙종 29)에 부사 이서가 중수한 것이다.²⁰⁾

⑥은 동래부의 연못에 있던 蓮亭으로 보이며 ⑦은 연정 옆의 晦息堂으로 6칸이며 1724년(경종 4)에 부사 尹游가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화면 오른쪽으로 산은 일본식 왜성이 쌓여져 甌山이라 하는지 원래부터 증산이었는데는 알 수 없으나 1740년(영조 16) 동래부사 朴師昌이 펴낸 『동래부지』에는 증산으로 표기 되고 있다. 이 산에는 鄉校와 城隍祠가 있었으며 干支가 서로 맞지는 않으나 조석명과 교체되어 온 부사 李重協이 완성하였다는 石水庫가 있었다 한다.

⑧은 신빙성은 낮으나 천막과 돌무더기로 석빙고의 공사 현장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그 시기 석빙고가 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⑨~⑮는 동래 향교로 ⑨가 大成殿, ⑩이 西廡, ⑪이 東廡, 그 앞이 내삼문으로 神門들이며 ⑫가 明倫堂, ⑬이 西齋, ⑭가 東齋이며 그 앞의 ⑮가 향교의 외삼문 기능을 하는 南樓를 묘사한 것이다.

동래향교는 원래 1392년(태조 1) 지방에 향교를 지어 유생의 교육에 힘쓰라는 태조의 교서를 받들어 태조 때 臥城(지금의 동래고등학교 자리)에 설립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바로 중건에 착수하여 1605년(선조 38)에 동래부사 洪遵이 건립하였다. 중건 당시에는 읍성 東門 밖 지금의 동래고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나, 1705년(숙종 31)에 府 동쪽 官奴山 아래로 옮겼다가, 1745년(영조 21)에 동문 밖으로 다시 이건하였다. 그 뒤 1785년(정조 9)에 內谷洞(지금의 화성초등학교 자리)으로 이전하였으며, 1812년(순조 12)에 현재의 위

¹⁹⁾ 『東萊府志』, 103쪽.

²⁰⁾ ‘十三 樓亭 息波樓 六間 在客舍南 崇禎己巳 府使柳汝路建 肅宗癸未 府使李重修 乙卯 府使崔命相又重修’ 『東萊府志』, 103쪽.

치로 옮겼다.²¹⁷⁾

대성전은 1605년에 동래부사 홍준이 건립하고 1611년(광해군 3)에 趙存性과 1685년에 柳之發이 중수하였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²²⁷⁾ 그림은 1703년(숙종 29)에 동래부사와 유생 辛一齋, 金相 등이 도백에게 품신하여 1704년(숙종 30)에 동래부사 이서가 충신당의 동쪽 수백보 되는 관노산 아래에 세운 것으로 기록상의 위치와 합치되고 있다.

⑯~⑰은 鄉廳과 州司로 보인다. 향청은 조선 초기에 설치된 留鄉所가 임진왜란 이후 대개 향청이라 개칭되었다. 설치 목적은 지방의 악질 鄉吏를 규찰하고 鄉風을 바르게 하는 등 鄉村教化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성격이 크게 달라져 수령 휘하에서 그를 보좌해 행정 실무의 일부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 때부터 명칭도 향청 또는 貳衙라 하였으며 좌수는 수령의 수석보좌관이 된 셈이었다. 향청은 12칸이며 대문 3칸, 외대문 1칸, 동중문 1칸, 동행랑 4칸, 서행랑 7칸, 남행랑 4칸으로 객사의 남쪽에 위치하며 1629년(인조 7)에 부사 柳汝恪이 세운 것을 1675년(숙종 1)에 부사 魚震翼이 중건하고 1706년(숙종 32) 부사 황일하가 將官廳 자리와 서로 맞바꾸어 중창한 것이다. 州司는 고을의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관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座起廳 8칸, 동행랑 5칸, 西庫 3칸, 내대문 1칸, 대문 1칸, 외대문 1칸으로 충신당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처음 지은 년도는 알 수 없으나 이 그림이 그려진 이후인 1731년(영조 7)에 부사 鄭彦燮이 重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⑱은 忠烈別祠로 파악된다. 충렬별사는 원래 동래성 남문안의 송공사라고 지었던 건물이 충렬사가 세워짐에 따라 충렬별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 충렬사는 1605년(선조 38)에 동래부사 윤환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忠烈公 宋象賢을 奉祀하기 위해 성의 남문안에 송공사를 건립한 것이

217) 『부산시사』 제4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東萊邑城』, 동래구청·동래문화원·경남문화재단연구원, 2008, 27쪽.

227)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攀化樓·內三門·外三門·東廡·西廡·東齋·西齋·左右夾門 등이 있으며, 향교 밖에는 역대 부사들의 興學碑群을 비롯하여 下馬碑 등이 있다. 대성전은 1605년에 건립된 후 1611년, 1685년에 중수되었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이다. 반화루는 1665년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문루로서, 주심포 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동서양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고, 동서양재는 정면이며,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이 향교의 건물배치는 문묘와 명륜당이 동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좌측의 반화루에 들어서면 정면에 명륜당이 있고 그 좌우 뜰에 동서양재가 있으며 우측의 외사문을 들어서면 다시 내삼문이 있고, 이를 지나 대성전과 동서 양무에 이르게 된다. 『東萊邑城』, 동래구청·동래문화원·경남문화재단연구원, 2008, 27~28쪽.

시초가 된 것이다. 그 후 1622년 당시 선위사였던 李敏求가 송공사에 사액을 내려달라는 주청과 아울러 부산진첨사 정발공의 사적이 함께 배향하도록 장례를 올렸다. 이 장계는 인조반정으로 회개치 못하다가 1624년(인조 2)에 충렬사란 사액이 내림과 동시에 정공도 함께 배향하게 되었다. 충렬사는 사액을 받은 후 28년만에 현재의 위치인 안락리로 이건하게 되었다. 1652년(효종 3) 부사 尹文擧가 부임후 사당을 참배한 후 현재의 사당이 좁고 저습하며 성문가까이 있어 시끄러우므로 사당의 위치로 적합지 않을 뿐 아니라, 송상현의 학행과 충절을 후학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하여 그 규모를 서원으로 확장시키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 萊山 밑의 안락리에 강당을 창건하고 안락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충렬사 안락서원이 완성되어 송공과 정공의 위패를 봉안하여 후학을 가르치며 풍속의 교화를 담당한지 58년만인 1709년(숙종 35)에 다시 임란 때 순절한 인물들에 대한 위패봉안의 문제가 부민들과 당시의 부사인 權以鎭에 의해 논의하게 되었다. 이에 권이진은 성내의 충렬사 옛 터에 사당을 따로 마련하여 양산군수 조영규와 동래교수 노개방을 竝享하고 제생인 문덕검을 배향하였으며, 또 그 옆에 판채를 지어 비장 宋鳳壽, 金希壽, 겸인인 申汝檣, 향리인 宋伯 그리고 부민인 金祥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해 10월 별사에 편액을 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이렇게 안락서원과 충렬별사로 나뉘어 봉안되던 위패는 1772년 충렬별사가 없어지면서 모두 충렬사로 합향하게 되는데, 이 그림 제작년대로 보아 이 건물은 충렬별사가 명확하다.²³⁾

①9는 동래부치의 정문으로 남문의 위치에 해당되며 홍살문으로 표현되었다.

동헌 아래쪽의 ②0-1번의 기와 건물군들은 동헌 남쪽에 위치한 관아 군으로 절청[作廳], 書役廳, 烽臺廳, 奴婢所, 小童房, 使令房, 教坊, 工房 등으로 보이며, ②0-2의 건물군은 동헌의 서쪽에 위치하는 시설로서, 객사의 서쪽은 司倉, 補役廳, 大同庫 등이며 동헌의 서쪽은 中軍廳, 將官廳, 外軍官廳, 別武士廳, 別騎衛廳, 營房, 藥房 등으로 瓦家뿐 만이 아니라 초가 등으로 밀집된 관아부속시설들로 파악된다.

②0-3은 軍器庫로 파악되는데 동래부지에 객사 동쪽의 관아시설로는 이 건물밖에 없으며, 또 軍器인 관계로 담장이 에워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²⁴⁾

23) 『충렬사 정화지』, 부산직할시, 1980, 60~63쪽.

24) 군기고의 座起廳은 3칸이고 東庫가 3칸, 西庫가 6칸, 火藥庫 2칸, 대문 1칸으로 1653년(효종 4)에 부사 任義伯이 添造하였고 1676년(숙종 2)에 부사 李穰이 重創하였으며 1691년(숙종 17)에 부사 金洪福이 3칸을 더 지었으며 1699년(숙종 25)에 부사 趙泰東이 중수한 것이다. 『東萊』

다음으로 그림에 묘사된 산수지형은 다음과 같다.

(가)는 동래 부치의 뒷산으로 말의 안장과 같은 형상이라 하여 예로부터 馬鞍山, 馬鞍嶺이라 불리던 곳이다. (나)는 향교 뒤의 甌山이며 (다)는 萊山이다.

(라)는 이 府治의 서쪽에 있는 三聖臺로, 동래부지에 의하면 ‘동래부 서쪽 2리에 있는데, 속전에 전하기를 안씨, 송씨, 옥씨의 세 성의 시조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²⁵⁾ 이 그림에서 삼성대의 앞 쪽으로 민가가 2~3채 표현되어 있다. 1731년 부사 정언섭이 동래부의 후기읍성을 다시 수축할 때 남문 자리에서 수많은 유골들이 출토되어 이를 삼성대 인근에 묻고, ‘임진전망유해지총’이라 한 바 있는데, 이는 6개의 무덤으로 나누어 묻었다하여 일명 ‘6총묘’라 불리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 상에서는 동래부의 후기읍성이 수축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6총의 묘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민가로 표현되고 있다.

(마)는 弄珠山으로 동래부의 남문 밖에 위치한 산이다.²⁶⁾ 나지막한 언덕에 우거진 나무를 묘사하고 있다. (바)는 범어천이며, 범어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사)廣濟橋이다.²⁷⁾ 광제교는 현재 평교인데, 여기에는 아치형의 목교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현재 부산박물관에 있는 사처석교비는 1781년(정조 5) 화강암으로 세운 비석으로 앞면 윗부분에 ‘사처석교비’라는 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이 돌다리를 세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글씨는 <부산진순절도>(보물 제391호), <동래부순절도>(보물 제392호)를 그린 조선 후기 대표적 동래부 무임화가인 卞璞이 썼다. 사처석교비는 1781년에 평교의 돌다리로 바꾼 것이며, 이 그림에서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섭교와 비슷하게 안경모양의 목교형태가 등장한다.

2. 회화적 특징과 제작자

『동래부치도』는 동래부의 진산인 馬鞍山을 화면 상단에 배치하고 동으로는 甌山과 萊山의 일부, 서로는 三姓臺, 남으로는 주산인 弄珠山을 표현하였고 아래로는 현재의 온천천으로 불리우는 梵魚川과 廣濟橋등의 지형과 지세를 상세하게 묘사하였으며, 府治 내부에 관아 시설과 민가 등을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의 계절은 『봉래수창록』의 서문과 후기에 명기된바와 같이 음력 3월의

府志』, 105쪽.

25) ‘十 古跡 三姓臺 在府西二里 (?) 傳安 · 宋 · 玉三姓始祖 居住之地’, 『東萊府志』, 102쪽.

26) ‘九 山川 弄珠山 在府南門外 府主山’, 『東萊府志』, 100쪽.

27) ‘二十四 橋梁 廣濟橋 在府西三里 宗庚申 以石作之’, 『東萊府志』, 109쪽.

시문을 짓고 노닐었던 정황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논에는 모심기가 된 형상을 그리고 나무는 신록으로 녹음이 우거지지 않게 표현되었다. 북으로는 부곡동 방향과 서로 온천동 방향, 남으로 거제동 방향과 남에서 나와 다시 동쪽으로 안락동 방향으로의 당시의 도로가 묘사되어 있다.

미안산은 『동래부지』에 府治의 북쪽 3리에 위치하며 鞍山 또는 鞍嶺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증산은 府治의 동쪽 2리에 위치하며 임진왜란 때 왜인이 쌓은 성이 있다고 하며 위에 將臺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현재 1976년도 동아대박물관에서 발굴하여 복원된 동래읍성 東將臺가 있는 산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산은 후기에 官奴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내산은 동래부지에는 府治의 동쪽 2리에 있으며 아래로 층렬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으로는 府治의 문으로 읍성이 쌓여지지 않아 성문이 없었던 관계로 홍살문으로 높이 표현되어 있다. 이 홍살문은 관아임을 알리기 위하여 여타의 홍살문에 비하여 굉장히 높게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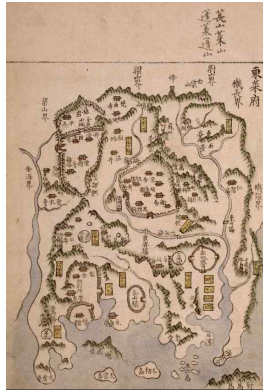
관아 시설로는 그림의 중앙에 객사인 봉래관을 두고 그 서쪽으로 관청 또는 접위청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으며, 이 앞으로는 동헌이 묘사되어 있다. 객사의 남쪽으로는 식과루가 위치하고, 식과루의 동쪽으로는 다수의 관아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관노산 아래에는 동래향교가 대성전,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과 동·서재가 상세히 그려지고, 명륜당 앞에는 문루식 누각인 남루가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동래부의 지형과 지리를 상세히 이는 사람이 그린 것으로 관아의 위치와 공간 배치가 정확한 것으로 보아 당시 동래 출신의 화사가 그렸을 개연이 높다. 시설 가운데 주요기관으로 단청이 칠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객사 봉래관, 동헌 충신당, 내아 완대헌, 객사 외삼문의 기능을 한 식과루, 동래향교, 층렬별사, 동래부의 남문 기능을 한 홍살문 등은 모두 기둥 부분을 주칠을 하여 품격을 높이 표현하였다. 나무를 표현 하는 방법도 수간의 구성이 사실적으로 보이며 米點의 찍는 기법도 숙련이 엿보인다. 농주산의 경우도 변박의 <동래부순절도>에서처럼 나무와 태점을 찍어 나지막한 능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존하는 동래부 회화 중 이른 시기 회화식 지도 형태로 묘사된 군현지도 계열로는 <輿地圖> 동래부 (18세기 중엽, 규장각)(도 6, 7), <해동지도> 동래부 (18세기 중엽, 규장각)(도 8, 9), 「여지도」 동래부 (1736~1776, 국립중앙도서관)²⁸⁾, 「地乘」 동래부 (18세기 중엽, 규장각)(도 10, 11) 등으로 모두 18세기 중엽 이후의 것이다. 18세기 후반 지도에 비해 19세기 작품들은 부감시점을 이용하여 주변

28) 『釜山古地圖』, 70쪽.

산수지형을 더욱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하였으나 동래부에 위치한 건물의 배치와 표현의 정확성에서는 앞선 시기보다 상세함에 있어 진일보한 듯 하지는 않다.(도 12~15)



도 6. <여지도>
(古4709-68)-동래부,
1736~1767제작추정,
26.6×19cm, 규장각



도 7. <여지도> (부분)
(古4709-68)-동래부,
1736~1767제작추정, 26.6×19cm,
규장각



도 8. <해동지도>
(古大4709-41)-동래부,
1750년대초,
47.0×30.5cm,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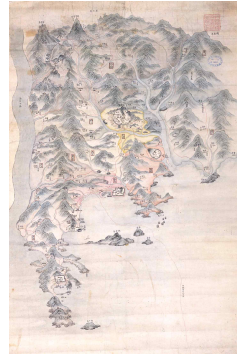
도 9. <해동지도>(부분)
(古大4709-41)-동래부, 1750년대초,
47.0×30.5cm, 규장각



도 10. <지승>(奎15423)
-동래부, 1776~1787,
27.0×19.0cm, 규장각



도 11. <지승>(부분)
(奎15423)-동래부, 1776~1787,
27.0×19.0cm,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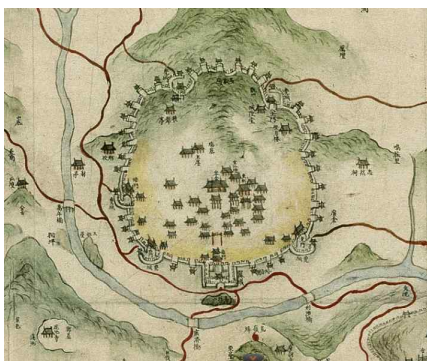
도 12. <동래부지도>,
19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133.4×82.7cm,
국립중앙도서관



도 13 <동래부지도>(부분),
19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133.4×82.7cm, 국립중앙도서관



도 14. <동래부지도>,
1872년 군현지방지도,
규장각



도 15. <동래부지도>(부분), 1872년
군현지방지도, 규장각

한편 기록화로서 보물 제392호인 <동래부순절도> (도 16)는 1709년(숙종 35)에 처음 그려졌으나, 지금 남아 있는 작품은 1760년(영조 36) 동래 출신의 무임화사 변박에 의하여 改模된 것으로 18세기 중반 이후의 그림이다. 그러나 이 기록화에서는 18세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부의 읍성을 표현하여 이른바 전기 읍성의 존재를 추론하여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읍성은 전쟁의 참패로 城石이 당시 동래성 안의 증산에 왜성을 쌓기 위해 거의 훼손되어 성축의 모양을 잃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를 묘사한 그림 자료로 1658년(효종 9)에 처음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송상현 증가 수장 <동래부순절도>(도 17)와 현존하지는 않으나 1709년(숙종 35)에 처음 그려진 <동래부순절도>가 있었다고 하나 성이 파괴된 지 한참 뒤에 그린 탓에 옛 모습을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 그림들은 모두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모본을 보고 그렸을 뿐이며, 그림을 그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많은 생략을 수반하고 있다. 반면 이 「동래부치도」는 후기 동래읍성 축조이전 동래부치의 모습을 자주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지형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화풍으로 볼 때 18세기 유행하던 정선의 수지법이 적극적으로 구사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가들 사이로 그려진 한 두 그루의 작은 수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논두렁을 가로지르는 길이나 범어천의 테두리에 음영을 가한 점이나 내산의 묘사에 농담을 통한 괴량감을 다소 반영하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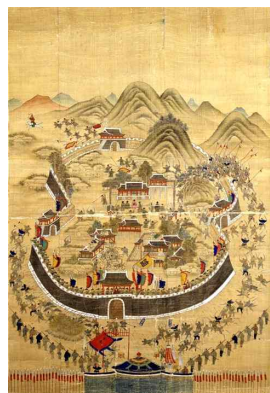
특히 마안산 일대의 산능선과 농주산에 가해진 태점표현, 농주산과 내산의 나무표현방식 등은 변박 필의 <동래부순절도>나 <동래고지도> 등에서 확인되는 동래부 무임화사 계열의 표현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마안산 등의 산능선 묘사나 동래부치 앞쪽으로 길의 모습이나 구획된 논외의 표현, 모내기를 끝낸 벼의 표현 등은 감상목적의 산수화적인 인상보다는 사실적 표현에 주력한 노력이 역력히 드러난다. 서화첩의 일부임에도 시회를 여는 인물들의 장면묘사의 여지는 전혀 없으며, 화면 안에 인물이라고는 府治 앞쪽 길을 짐을 지고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다. 화사가 정적인 화면에 두 사람을 시선이 집중되는 화면 중앙 아래에 동적으로 포치함으로 평온감과 한가로움을 더하는 운치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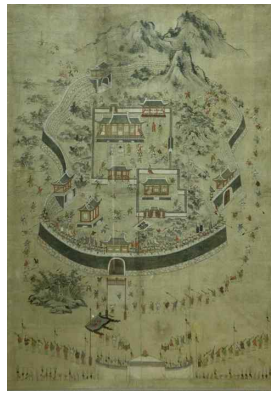
「동래부치도」를 그린 화사에 관하여는 <序>, <題>, <後>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다만 화격이 취재를 통해 얻어진 도화서 화원풍과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나 화력이 있는 화가로 보아도 무방할 수준이다. 산을 표현하는 鈎勒填彩와 樹幹의 표현, 집에 대한 선에 직선의 굽기, 화면 하부에 그린 인물묘사가 몇 개의

필선만으로 동감을 나타낸 점 등은 높이 인정된다. 그러나 영조시절에 趙榮祐, 卞相璧, 金斗樑, 沈師正, 李麟祥 등의 뛰어난 화원이 등장하는 시기여서 관직이 있는 전업화, 전문화된 화원으로는 보기 어렵다.

<동래부순절도>를 그린 변박이 동래의 무임이었고 <임진전란도>를 그린 李詩訥이 동래무임이었으며, 다른 <동래부순절도>(1834)(도 18)를 그린 卞崑이 동래의 무임이었음을 볼 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이러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라고 유추된다. 더욱이 시회의 감상적 모습을 그려내기 보다는 당시 동래부치의 정확한 지형과 지세를 그린 것은 아마도 지형을 익히 파악하고 있는 동래부 무임화사였기에 익숙한 공간을 그려내는 것이 더욱이 가능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도 16. 변박, <동래부순절도>, 1760년, 지본채색, 145×96cm, 보물 제392호, 육군박물관



도 17. <동래부순절도>, 종가수장본, 견본채색, 147×112cm, 충북도유형문화재 제223호, 정주고인쇄박물관



도 18. 변곤, <동래부순절도>, 견본채색, 134×90cm, 울산시유형문화재 제30호, 울산박물관

현재 알려진 대표적 동래부 무임화사인 변박의 가장 이른 시기 작품이 1760년 <동래부순절도>이며, 마지막 기년명 작품으로는 1783년 <초량왜관도>가 있다. 그 외 卞琢(1742~1778년 이후)은 1742년생으로 1763년 변박과 함께 통신사행에 참여했는데, 활동시기가 1725년 『봉래수창록』 제작시기와 어긋나며, 1834년 <동래부순절도>(도 18)를 그렸던 변곤과 <임진전란도>를 그렸던 이시눌 역시 그의 활동 시기와의 한 세기의 차이를 보인다. 18세기 중반 활동했던 변박의 마지막 기년명작품 시기인 1783년과 『봉래수창록』의 제작시기인 1725년은 58년의 차이이다. 그 기간 동안 무임직을 계속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화풍에서 나무에 많은 점을 찍어 표현하는 방법과 집의 묘사에서 변박의 그림과 유사성

이 있어 같은 계통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18세기 후반을 전성기로 활동했던 변박 이전에 또 다른 동래부 화사의 작품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동래부사였음을 감안한다면 동래부 무임화사의 작품일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된다.

글씨를 쓴 李仲寬의 작품일 수도 있으나 ‘이중관에게 글씨를 부탁했다’는 내용 이외에 서문에서는 다른 언급은 없다. ‘仲寬’은 字일 가능성도 높다. 이중관은 글씨를 잘 쓰는 鄉班이거나 동래부의 吏胥일수 있으나 寫字官體에 가까워 화사와 같이 동래부의 무임으로 봉록을 받는 軍官일 가능성도 있다. 사자관체는 글씨를 많이 써 숙련이 필요한 글씨체인 관계로 훈련이 없는 사람의 글씨로는 볼 수 없다. 사자관은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承文院과 御製御筆을 보관하는 奎章閣과 출판 인쇄를 담당하는 校書館 등에서 글씨만을 전업적으로 맡아 썼던 기술직 관리이다. 韓濩(1543~1605)에서 시작하여 金義信(1603~?)에 의하여 완성된 서체로 흠잡을 데 없이 정성들여 활자처럼 쓴 글씨이다. 특히 김의신은 1643년(인조21)과 1655년(효종6)에 통신사의 사자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경력이 있어 통신사가 출발할 때 부산 동래에 오래 유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산에는 1705년(숙종31)에 倭學專攻으로 譯科에 합격하여 1709년에 東萊譯官의 역임이 확인되고²⁹⁾ 오래 동안 東萊訓導, 都訓導를 역임한 玄德潤(1676~1737)이 외교 업무를 보면서도 글씨에 능하여³⁰⁾ 이러한 사자관체가 이 지방에서도 유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엄밀한 의미의 사자관체는 외교문서 正楷, 正書, 眞書라고도 부르는 正體의 楷書로의 글씨체이다. 봉래수창록의 서체는 행서이나 사자관의 행서체와 유사하여 넓은 뜻의 사자관체로 불릴 수 있다. 글씨를 쓴 이중관의 그림 제작여부에 관해서는 추후 보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V. 『蓬萊酬唱錄』 내용

『봉래수창록』은 총 35장으로 구성된 시화첩이다. 1장의 1~2면은 ‘蓬萊, 酬唱’을 대자를 쓴 것으로 頭印에 해당되는 부분에 홍성의 자인 光國이 찍힌 것이나 수창록 後記를 홍성이 짓고 썼는데 두 글씨가 같은 필체여서 홍성의 필적으로 추정된다. 2장은 ‘동래부치도’로 양면 전체에 크게 그려진 채색 회화식 지도 형식

29) ‘十七 草梁公廡 草梁公廡 出使廳 肅宗 己丑 譯官玄德潤重修又添造’ 『東萊府志』, 106쪽.

30) 『權域書畫徵』

이다. 3장과 4장은 정석유의 <蓬萊酬唱錄序>이며, 5~6장은 동래부사 조석명의 <題詞>이고, 이 뒤로는 수창한 내용인 詩文인데 모두 같은 글씨로 이중관이 쓴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7면에서 시작되는 시문은 52수는 7언 율시이며 말미의 2수는 5언 율시로 총 54수이다. 이 시문들은 현재 조석명, 정석유, 홍성, 조준명, 범어사 승려 존각 등 5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준명과 범어사 승려 존각의 시는 각기 1수씩 밖에 없으며 대다수가 조석명, 정석유, 홍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정석유의 <蓬萊酬唱錄序>에 ‘自參以上 皆著志 詞翰家酬唱有錄 厥惟舊哉’라 하여 ‘셋 이상이면 모두 드러내어 기록하기에 詞翰家가 글을 주고받음에 기록이 있는 지는 오래되었다’는 문구가 시작 글귀인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조석명, 정석유, 홍성의 세 사람이 수창한 시에 같은 운으로 지은 조준명과 범어사 승려 존각의 시 1수씩을 덧붙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조석명의 <題詞>에 ‘而或能使四家子弟 得觀於歲久之後’라 하여 ‘혹 네 집안 자제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뒤에 볼 수 있게 한다면’이라 한 글에서 당시 4분을 장황하여 조준명의 자제까지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미의 후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접위관 홍성이 짓고 쓴 것이다.

서문과 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蓬萊酬唱錄序

自參以上 皆著志 詞翰家酬唱有錄 厥惟舊哉. 晉有臨海 唐有鳳池華嶽 宋有龍門欒城等錄 其所以擥英纈馥 綺膾人口目者 誠不朽事也. 今知府豐城趙公 亦文章伯也. 下車越明年春 政成官閑 開館延鉛槧客 觴咏事詩酒. 唐城洪公 以接慰使奉命至 洪公嘗用文筆自任 不佞亦以通家子弟 適會於是時 來拜床下 克復獲趨下塵承末流 唐突乎文章之觀 而堂絃室音春唱雪和者 卷已拱矣. 趙公以蓬萊酬唱錄名其卷 屬不佞作序 弁厥首 甚勝踐也. 不佞何敢以不文辭. 竊惟蓬萊仙境 固不與臨誨華岳龍門溟滓. 然弟之趙公之地望清切 翰墨俊捷 又不讓謝杜蘇歐, 洪公又不下羊何劉秦之朗宇逸藻 則安知後人之翹足深脂慕悅欽景 不若今日之艷羨晉唐宋諸賢也. 唐與文章 莫若昌黎公也 尚喜作序 得列於王三之次. 矧惟如不佞者 其不爲蠅附驥能千里乎. 韶夏登奏 睚眦祛耳 幸甚大矣. 是以序焉.

歲在旃蒙大荒落之嘉月日 蓬山鄭錫儒 謹序.

授萊節 踰鳥嶺 先問道內文章鉅擘其誰人. 或傳蓬山鄭君錫儒甫聲

華 一欲見之 而未有路矣. 乙巳春 鄭君有事於萊 訪余郡齋 始倒屣迎之 叩其所蓄 則文辭放肆 源流浩汗 有若深林巨谷 氣勢雄渾 藍玉荆金 奇麗奪目, 雖坐於一第 未免蓬藁之行 而眞文章士也. 且鄭君椿府公 與余會參杏園會 故益親厚之 有韻輒與相酬. 茲際 洪公光國 承接慰之命 來留於蓬萊館 詩酒跌宕 累月過從於窮誨之濱 茲豈非浮世間一段奇事也耶. 洪公會與余珥筆銀臺橫經銅樓 出入聯翩 情志款洽 雖不無中間睽違之歎 而宿昔顏面 復接於酒席之間 參會他鄉 吟咏成軸 命工粧縑 倩李君仲寬氏筆焉. 盖余有投絃之志 而已賦歸田篇矣. 杜門鄉廬 鬱悒佗僚 無以消遣其歲月 而携茲卷於茅屋破窓之下 時時展看 想像乎萊山舊遊 則豈非爲破寂之一助 而或能使四家子弟 得觀於歲久之後 則可以知伊時事 而況然若隅坐於詞場酒壘之傍矣. 余未嘗留意於詞翰家 而敢以俚音繁唱 得廁文會之間 是何異於年老村嫗 強施朱粉於皴疲之顏 而較色爭妍於絃粧華服之毛嬙西施也耶. 亦有榮焉 茲以書之.

歲乙巳春 豐城趙伯承 題于萊州忠信堂.

題蓬萊酬唱錄後

詩言志也 錄帖傳後也. 僕膺命僨倭 來留蓬館 主伯趙侯伯承舊僚也. 幸得拭青於八九年睽離之後 海外逢迎之樂 已不可言 而鄭文士錫儒仲珍 自星山來 亦殊方一奇遇也. 團欒之間 自有乍吟詠. 趙侯之清神雅麗 鄭谷之幽深雄情 不覺讓頭退步 而趙侯命使粧縑 鄙俚之吟 亦領在其中 亦可羞也 而將爲後世子孫之傳翫 亦謂不朽之盛事. 略敘其槩于笏尾.

乙巳清和上浣日 書于蓬萊.

<序文> 다음으로 4장부터 시작되는 시문은 총 54수이다.

당시의 동래부사 조석명이 동래부의 동헌인 충신당에서 쓴 <題詞>를 두고 조석명, 정석유, 홍성, 조준명과 범어사 승려 존각 등이 지은 것을 56페이지에 걸쳐 행서로 필사하였다.

4장에서 시작되는 시문 중 52수는 7언 율시이며 말미의 2수는 5언 율시로 총 54수이다.

7언 율시는 조석명과 정석유가 然, 連, 年, 圓, 憐의 운으로 서로 4수씩 주고받은 시 8수가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동래부의 누정인 靖遠樓에서 『放翁集』의 韻을 次韻하여 조석명의 3수, 홍성의 2수, 정석유의 4수로 深, 林, 心, 禽, 吟 등의 운으로 주고받은 9수이다.

다음으로는 당시에 동래부사를 역임한 대문호로 알려진 東岳 李安訥의 詩

板에 있는 腰, 颯, 潮, 遙, 寥를 운으로 하여 조석명의 시 3수와 홍성의 시 1수, 정석유 의 시 1수, 범어사 승려 존각의 시 1수 및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는 시 1수로 수창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는 시 1수는 당시에 바로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양면에 걸쳐 <附東岳先生韻>으로 운자 끝에 덧붙여 있다. 이 시는 이안눌의 <秋日思親詩>로 1740년(영조 16) 동래부사 박사장이 편찬한 『동래부지』의 부록인 「題詠雜著」에 ‘丈二青縞謾詰腰/坐看蠻樹起商飈/地多炎瘴晴生霧/城近滄溟夜聽潮/白髮依閭西日短/丹心戀闕北辰遙/不堪嗚咽同兒女/京國音書正寂寥’라는 시를 차운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래부의 객사인 蓬萊館의 詩板에 있는 운을 빌어 齋, 懷, 佳, 階, 排를 腰韻으로 한 시를 조석명 7수, 정석유 3수, 홍성 1수, 조준명 1수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詩는 「제영잡저」에 실린 宣慰使 李志完가 1609년(광해군 1) 음력 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만1년이 되는 이안눌에게 ‘寂寥終日坐官齋/酒榼茶廚慰客懷/百戰忍看城郭廢/三春且喜物華佳/梅香繚繞穿疎牖/竹影交加覆小階/強覓詩篇稀警責/時逢韻釋問安排’라는 시와 이안눌이 이 시에 답하여 ‘兵後官居只小齋/高春端坐惱羈懷/鬢無更白身仍滯/蒲又全青節自佳/戰地煙塵迷壞堞/衙時烏雀集空階/城郭却向東南望/馬島峰巒海上排’라는 시로 화답하였다. 이후 이 시는 동래를 찾는 문사들에게 회자되었다. 따라서 이 시는 宣慰使 李敏求가 차운하기도 하였으며, 후일 동래부사를 역임한 接慰官 鄭皙도 차운하였고, 接慰官 李玄紀도 자신의 從祖父인 觀海 李敏求의 시를 다시 차운하기도 하였다.³¹⁾

같은 봉래관의 다른 詩板의 운으로 보이는 吳, 都, 烏, 胡의 운으로 조석명의 시 1수, 홍성의 시 2수, 정석유의 시 3수가 실려 있다. 이 다음에는 당대의 인물로 1717년(숙종 43)에 경상도 御使로 동래출렬사에 들러 시를 남긴 來初 李仁復의 題忠烈祠 시의 知, 祠, 悲, 彝의 운을 차운하여 조석명의 시 1수, 정석유의 시 1수가 배치되었다. 이 후 조석명과 정석유가 초량왜관으로 가면서 <草梁道中> 이라는 시 각 1수씩을 남겼으며, 같은 경로로 永嘉臺에서 각 1수씩을 더하였다. 이 4수의 시는 暄, 門, 園, 鶯, 吞의 운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시는 5언율시로 범어사를 두고 읊은 이안눌의시에 人, 身, 巾, 神의

31) 宣慰使 李敏求 시 ‘端居彌日似長齋/遠道經年獨永懷/海上開城常早閉/天邊雲物入春佳/愁回薄暮頻移榻/病怯輕寒不下階/祇爲梅花侵客顏/時敲竹戶倩人排: 接慰官 鄭皙 시 ‘官樓圓寂似禪齋/遠客經春倍感懷/霜鬢剩添愁裡白/碧山長負夢中佳/林花着雨寒侵檻/庭草和烟細映階/終日苦吟綠底事/滿腔羈恨要詩排: 接慰官 李玄紀 次從祖觀海韻 ‘年來棲息半官齋/樂事逢場未展懷/客裡聞歌猶是恨/愁中得句捻慘佳/新梅遇臘開寒館/老筆迎風殞夜階/歲暮邊閑常閉戶/爲看明月喚人排, 『客舍 寅賓軒』, 『國役 東萊府志 題詠雜著 篇』, 東萊文化院, 2000, 99쪽·110쪽·111쪽.

운으로 된 시이다. 이 시도 「제영잡저」에 ‘德水李居士/萊山晶上人/煙霞一古寺/丘壑兩閑身/掃石苔粘履/觀松露墊巾/蒼崖百千劫/短什是傳神’를 차운한 것이다. [표 4]

말미의 양면에는 문장의 내용상 홍성이 지은 <題蓬萊酬唱錄後>가 곁들여지고 홍성의 인장으로 보이는 양각의 주문 방인이 찍혀 있다.

표 5. 『봉래수창록』 서체

글씨				
	위치	後記	題名 大字	序
글쓴이	洪晟	洪晟추정	李仲寬	李仲寬추정

『봉래수창록』의 글씨는 조석명의 <題詞>에 ‘命工粧橫 倩李君仲寬氏筆焉’이라 하여 장황하기 위하여 이중관의 글씨로 새로이 필사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이중관은 동래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仲寬은 冠名이 아니고 당대 사람들 간에 불렀던 字로 보인다. 이중관의 글씨는 <序>와 <題>를 비롯하여 시문의 본문을 전부 적었으며 별지로 된 <題銘>의 글도 그의 글씨로 확인된다. [표 4]

동래 무임에 화사와 같이 寫字官 계열이 소속되었는지는 현재 파악되지 않으나 전체 글씨의 구성은 石峯 韓濩와 雪峰 金義信으로 내려오는 寫字官體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雪峰은 1643년(인조 21)과 1655년(효종 6) 두 번에 걸쳐 通信使의 사자관으로 이 지역에서 머물렀기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래부의 무임가운데 이 수창록이 만들어진 1725년(영조 1) 전의 기록이 남아 있는 先生案은 1719년부터 기록된 『別騎衛先生案』이 있을 뿐 다른 사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별기위선생안』에 같은 시기의 인물로 李是膽, 李東함, 李天希, 李仁瑞, 李根華 등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李是膽은 增廣試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필사자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홍성이 지은 <題蓬萊酬唱錄後>는 이중관의 글씨와 필체와 차이를 보이고 半草를 곁들여 있으며 문장의 내용에 ‘僕膺命債倭 來留蓬館’이라 하여 ‘내가 倭人을 접대하라는 명을 받고 동래 객관에 와서 머물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홍성이 직접 쓴 것이다.

서책의 앞부분의 <序>와 <題>는 시문이 모여 장황의 필요가 요구될 때를 즈음하여 음력 3월에 지은 것인데 비하여, 卷頭의 <題銘>과 卷末의 <後記>는 4월 상순에 지어진 것으로 보아 장황 후에 남은 여백에 홍성이 짓고 쓴 것이거나 다소의 여유를 두고 지은 것이다.

접위사 또는 접위관은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으로 당시 일본의 사신은 대차왜, 별차왜, 재판차왜, 심상차왜, 표차왜 등의 구별이 있었는데, 접위관은 일본 사신의 고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차왜가 올 경우는 반드시 京官 중에서 접위관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심상차왜가 올 경우는 수령중의 문관으로서 접위관을 차정한다.³²⁾ 또 이 때 접위사가 파송되어 오면 差倭의 초량왜관 체류일이 60일 이상이었기에 상당기간 동래부와 초량왜관에서 유숙하였다. 그러므로 홍성이 접위관으로 동래에 머물 당시 동래부사와의 교류와 시회가 가능했을 것이다.

표 4. 『봉래수창록』 내용

	2면(左)	1면(右)
1장	題名	
2장	東萊府治圖	
3~6장	蓬萊酬唱錄後序	
7장	看君文字覺蒼然	逢場待酒已茫然

³²⁾ ‘大差倭出來則 差遣京接慰官 尋常差倭則 以守令中文官 差接慰官’ 『禮典 待使客』, 『大典會通』

	<p>直溯班楊氣味連 青眼對尊聊淹日 白頭傾盖可忘年 陽生北陸梅初動 跡滯南嶠月屢圓 莫向星山歸駕促 萊州春色可無憐 伯承</p>	<p>憶上高軒拜惠連 相吏不須留竟日 嚴君何幸與同年 春生梅閣輕初破 月入蓮池碎却圓 回首風塵堪涕淚 練裙天地復誰憐 鄭錫儒 仲珍</p>
8장	<p>東來(萊의 오자)山勢覺依然 萊府仙居大海連 玄館開花画舊客 鳥途乘駟在何年 流光白髮千莖短 浮世黃粱一夢圓 自喜老夫詩興在 南樓月色也堪憐 伯承</p>	<p>身跨蹇驢似浩然 灞橋梅發興留連 高吟洛襪凌波日 偏咸隋珠照夜年 南國滯蹤天共遠 北堂歸夢月同圓 懷來柑橘非無意 從古詞人亦可憐 仲珍</p>
9장	<p>癡坐梅軒意悄然 洛城回望萬峰連 丹心炳日酬明主 玄髮添霜感暮年 潑雪盃光隨手倒 照窓燈影向宵圓 子眞眞態春風襲 咏鳳奇才更覺憐 伯承</p>	<p>蓬萊節制獨巋然 太守高標小仲連 山雉返舟騎竹地 江花照邑渡橋年 冲襟豈抱蛇珠朗 藝苑難吞鸞石圓 蕭瑟平生無藉在 好蒙朱紱有哀憐 仲珍</p>
10장	<p>人間萬事信悠然 何幸今來見二連 橫塞倚樓驚傑句 傾盆引算供長年 波寒澤國魚游苦 日暖江州鷺睡圓 一曲高歌山石爛 齊門掃雪可能憐 仲珍</p>	<p>三山此去莽蒼然 底夜飛來左股連 和露玉芝長住日 如霜金骨不知年 同舟仙侶投瓊戲 拾翠佳人解珮圓 莫道春光能挽客 成都寧復有憐憐</p>
11장	<p>長日高軒中酒深 到看微月下西林 粘泥可曳神龜尾 展遠何存老驥心 千里羈愁瞻塞鴈 一春歸夢負沙禽 連城鄭谷詩難和 非是先生不愛吟 光國</p>	<p>靖遠樓次放翁集中韻 移席欄頭竹色深 眼前闔井帶松林 春光轉惹思鄉念 花意偏傷向老心 暮市人歸輪海錯 公庭衙罷下山禽 (江山)景物催詩興 一盞飛時且一唵 江山 伯承</p>

12장	海外相逢托契深 愛君才格擅詞林 毫端戲弄三春態 卷裡淹詠萬古心 驚足那能追駿驥 鷄群還似立仙禽 調高白雪無人和 閣筆多慚下里吟 伯承	江湖落魄歲年深 來蔭候家玉樹林 極目雲山堪保命 回頭塵世摠傷心 將傾斗水猶沾鮒 還把虛弦莫墮禽 從古詩人存習氣 不妨隨意放豪吟 仲珍
13장	珊瑚春事十分深 一雨邊州綠滿林 俗物每來多敗意 高朋遠至喜論心 才違世用悲荊璞 病撥鄉思怨蜀禽 千里嶺雲時極目 白頭愁絕隴頭吟 伯承	雨後郊原草色深 拓窓終日帶松林 開樽劇(飲)成休飲 隱几無心勝有心 異地離羣同繫驥 好音求友聽幽禽 病中頓覺詩聲澁 強起濡毫和逸吟 光國 飲
14장	江梅幸得托根深 神喜難蒙見大林 日灸蘭芝偏襲氣 歲寒松柏獨存心 倚伏自知從塞馬 飛號何事無沙禽 微才不足追羊仲 海嶠多孤謝子吟 仲珍	百里湖山化雨心 陶然民物共林林 廐鳴齋馬知稀力 市不飲牛看革心 剪拂每豪存社驥 氈毼自愧類羊禽 屢陪風月乾詩筆 難和彌明石鼎吟 仲珍
15장		潘江陸海不知深 詩虎(號의 오자)名高翰墨林 妙處自然株滅味 會時聊爾爽忘心 尙看伯樂空羣驥 堪使坡翁咏八禽 欲借吹噓天送上 河東近日有長吟 仲珍
16장	金印無心拖病腰 屋頭終日吼狂飈 春來客抱同懸旆 酒後深愁似退潮 銀海烟霞三島近 玉樓消息五雲遙 鈴齋朱墨多閑暇 觴詠頻繁不寂寥 伯承 頻	次東岳板上韻 春情斷斷好纖腰 羈思搖搖聽颼颼 疎鬢驚心添白雪 皺顏敷色上紅潮 胸吞濶海東臨遠 目送歸雲北望遙 覓紙題詩仍取醉 落花飛絮正寥寥 光國

17장	衣帶緩來覺減腰 病餘憑檻試輕颺 充街金帛開朝市 歸海帆檣逐暮潮 芳草落花春意懶 亂山殘日客情遙 自喜官庭詞訟簡 好排詩句坐寥寥 伯承	從我便便腰腹腰 波濤平地起狂颺 蓬萊長揖連城守 天壤高歌望海潮 幸與星輶雷邂逅 翻追文駟日逍遙 談囊到夜深無底 始信詩鋒豁碧寥 仲珍
18장	靖節當年忿折腰 歸思一棹對輕颺 尋僧獅座投山寺 談道龍藏聽海潮 蓮社舊遊誰繼作 石門今日陪逍遙 拚來瓊韻添新興 將此窈窕慰寂寥 梵魚寺僧 存覺	南方二月麥齊腰 一雨樓頭送竹颺 嶺上瘴來山似桂 天涯路遠地同潮 酒盃孤館愁中度 花柳秦城望裏遙 景物撩人催好句 共分唵榻對參寥 伯承
19장	두 면에 나누어 기록	附東岳先生韻 丈二青緇謾結腰 坐看蠻樹起商颺 地多炎瘴晴生霧 城近滄溟夜聽潮 白髮倚閭西日短 丹心戀闕北辰遙 不堪嗚咽同兒女 京國音書正寂寥
20장	洗心何待罷花齋 託駕長風願入懷 采石月寒悲響斷 廬陵春暖覺詩佳 雖無米子蚤眠尔 肯借倉公鳥迹階 欲向齊門還掃雪 當開赤捧莫躋排 仲珍	次蓬萊館板上歎 空軒終日坐如齋 花鳥東風撩客懷 瘴氣難堪南土惡 女郎無復北方佳 腥脾海味偏登案 慣面隣兒任上階 已報愁城歡伯捷 更教詩壘入雲排 光國
21장	風塵天地未心齋 行路難行多惡懷 半面學粧爭笑醜 千金享筭敢言佳 蘭堂襲馥水生樹 丈室論文雪沒階 聞道蓬萊羽客(列) 應教物色待披排 伯承	文書畫靜掩空齋 按慰詩清撥病懷 齒缺久虛盤錯雋 鬢斑無意塵姬佳 功名已晚垂金印 方略何由借玉階 花鳥一春牽老興 拈來華管句新排 伯承

22장	吾道悠悠寄浩齋 賢人從古卷而懷 同時白雪凡三關 當世青雲第一佳 將代斫輪應血指 安能抗禮共分階 恢恢遊刃斫新發 始覺庖丁得批排 伯承	蓬萊太守臥仙齋 富貴江山只寓懷 爛熳韶光樽酒集 招邀勝事友朋佳 黃梅節近淹邊土 紅藥風翻想省階 聞道邦家新慶大 紫宸冠佩賀班排 伯承
23장	爲清公看畫舫齋 歐翁椽筆寫危懷 蓬壺今作神仙尉 粉署曾占地節佳 黃封泛灑傾蓬燭 翠管偏番降藥階 雲雨人間翻覆手 灌夫當日欲根排 仲珍	危坐眞同繡佛齋 除詩何以慰孤懷 臨邊未有兵流曉 治郡慚無政令佳 春入故園花滿樹 客稀江閣草侵階 那時吟就歸田賦 案上琴書得好排 伯承
24장	好笑太常議犯齋 不妨呼酒暫開懷 愁邊日月堯莫改 和裏詩篇魏樹佳 遙想鸞班趨鳳闕 應悲鳧鳥限螭階 質成難遂田園階 須待神明與推排 仲珍	長德曾聞洪恥齋 後孫光國亦奇懷 文章李杜天才得 筆法鐘王正脉佳 含命多時臨玉海 戒途何日返瑤階 清香書閣唯高欽 開閉城門鼓角排 伯承
25장	詩評曾考德機齋 歌曲篇行摠述懷 句有銜材徒是麗 言無失度自然佳 宮商迭奏諸家體 明宋夷爲幾級階 點檢拾遺三十格 今人唸詠任安排 仲珍	奴蓄后山與簡齋 江山風月總襟懷 徐行緩步文源壯 捷出橫翔句格佳 繞遇大方先屈膝 欲升邃闕敢由階 詩兵筆陣奇勳策 笠轂中權許子排 伯承
26장	放衙潭府坐清齋 移席危樓聘遠壞 會挹敘倫桃李樂 癖慚耽句杜陵佳 暮春花落香侵齒 微雨苔生綠上階 援筆共題陶令賦 歸田何日客愁排 慎汝	窓巖水邊置茅齋 江月溪雲奇曠懷 南郡久糜菊牧責 故園辜負竹松佳 臨民終日常憑几 多病三春不下階 小吏會吾吟咏意 先將筆硯案頭排 伯承

27장	艷態纖腰勝楚妹 蓬萊佳麗類東吳 山巖峻病骨頹孤館 爛熳韶華憶上都 客意偏忘春午燕 離懷正斷夜啼烏 飛花落絮愁無賴 弄墨題詩漫草胡 光國	讀罷清篇語最殊 依然大楚勢吞吳 文章高價同三蜀 賓主歡談敵兩都 顧我自慙風背鳥 拜公偏愛屋頭烏 聊將燕石求明月 笑殺留題似賈胡 仲珍
28장	文章莫效倚街姝 鼓勇寧同越鑿吳 三代豈能追二典 東京終不勝西都 棄古好奇難成虎 隨俗趨卑類辨烏 正路可從經傳得 眩粧奇服戒秋胡 光國	味似玄羹色勝姝 正平聲價奪三吳 管絃不以絲麻棄 器宇當看將相都 鳴是鸞音寧翰鷲 浴非鵠白自黔烏 奇珍從古人難辨 欲問眞僧寶息胡 仲珍
29장	蓬萊佳約解瓊姝 仙府風烟勝楚吳 自喜長卿臨蜀道 還欣杜甫客成都 凸杯美酒波浮蟻 壓座妖姬鬢似烏 安不忘危存聖戒 幕中籌策講平胡 伯承	寒氣夜織類貧姝 披拂寧無柳惜吳 欲照濕蒿燃水府 先從平子賦山都 雲栖每警深丹世 鶴事終傷莫黑烏 聽雨起他鄉土戀 典衣來問酒家胡 仲珍
30장	春風作客蓬萊州 傍海行裝窮僻幽 多大天成設險地 關防人忽安邊籌 森羅景物繞詩墨 跌宕胸懷開畫樓 勝地遨遊豈偶爾 悠悠世事皆東流 光國	多大侍變樓次板上韻 多大浦隣對馬州 海天窮處景光幽 烟塵靜息無南牧 詩酒猖狂是上籌 方丈三神疑此地 羣山一點又茲樓 樽前始覺扶桑近 不費攀登遠矚流 伯承
31장	雄豪不必六韜垂 節義當從世亂(知) 終古段顏能報國 至今巡遠獨遺祠 身輕一死稀前列 忠貫三霄起後悲 欲愧爲人臣苟活 昭然泚跡入鐘彝 仲珍 知	次李來初忠烈祠韻 殉身大節汗青垂 炳炳精忠走卒知 義烈不聞河壯士 苾芬空薦蜀中祠 江山往跡陰雲結 松柏寒聲落月悲 以賊遺君人莫恥 夫公千載植倫彝 伯承

32장	<p>新磨鏡面渚沙暄 政好徐行望海門 有意雲烟粧嶽岫 多情松竹媚郊園 狂濤疑策秦皇石 何歲曾過漢使騫 始信玄虛揮大筆 不論電作與鯨吞 仲珍</p>	<p>草梁道中 宿雨初晴天氣暄 元戎小隊出城門 黃梅花發誰人宅 蒼檜雲屯鄭氏園 日灸郊原旗影轉 路連滄海馬蹄騫 都收物色歸詩料 溟渤胸中八九吞 伯承</p>
33장	<p>杜甫遊春錦水暄 幸陪元帥下轅門 何年學士過雲馭 誰處僻疆看竹園 風雨宛如靈鬼妬 波濤疑是大鵬騫 河神自起望洋歎 舌吐居然聲半吞 仲珍</p>	<p>永嘉臺 林間禽語訴春暄 傍岸人家竹作門 已覺韶光迷海國 想應花事滿鄉園 時平戰艦黃龍臥 天近危樓彩翬騫 半日偷閑猶未返 坐看沙嘴晚潮吞 伯承</p>
34장	<p>佛日明眞境 登臨知幾人 曹溪翻洗眼 塵世覓抽身 渡澗雲春(確) 攀岩樹拂巾 留連歸不去 驚我是江神 仲珍 確</p>	<p>梵魚寺次東岳韻 撥冗肩輿動 風光似待人 石頑蹲虎狀 湫古臥龍身 竹露沾游襪 松花墮側巾 千秋東岳老 詩句泣山神 伯承</p>
35장	蓬萊酬唱錄後	

IV. 맺음말

『봉래수창록』은 1725년 음력 3월 동래부사 조석명이 주관하여 여러 智人들과 동래부에서 수창한 시문을 그림과 함께 장황한 서화첩이다.

서화첩 구성은 卷頭에 접위관 홍성이 大字로 ‘蓬萊, 酬唱’이라 <題銘>을 쓰고 다음으로 「동래부치도」를 배치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주의 문사 정석유가 지은 <蓬萊酬唱錄序>가 있다. 그 뒤로 당시의 동래부사 조석명이 지은 책 제목에

가능하는 권두사에 해당되는 <題詞>를 두었고, 이어 본문에 해당되는 조석명, 정석유, 홍성, 조준명, 범어사 승려 존각이 지은 시문 55수를 이중관이 행서로 필사하였다. 卷末은 홍성이 짓고 쓴 <後記>로 장황되어 있다. 이 서화첩은 가필이나 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의 장황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1725년(영조 1)년 당시의 동래부사 조석명은 나이가 52세로 이 벼슬을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여러 날에 걸친 수창시를 시화첩으로 묶어 후일 동래에서의 일을 回憶하고 破寂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며 또한 네 집안의 자제들이 뒷날 볼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함께 수창을 한 이들은 일찍이 관직에 함께 있었거나 집안간의 교류로 친분이 이미 있었는데, 그 시기 동래에 뜻하지 않게 모이게 된 것이다. 조석명과 홍성은 승정원과 세자시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다 홍성이 접위관으로 오게 됨에 따라 조우 한 것이고, 정석유의 부친과 조석명은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사이이며, 조준명은 당시 동래와 같은 경상도의 함양군수로 조석명과는 再從間이다.

한편 『봉래수창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래부치도」이다. 현재까지의 동래부의 그림은 모두 동래성을 기저로 하고 그려진 것이다. 동래성은 임진왜란으로 증산에 일본식 성을 쌓는 관계로 기존 읍성의 상층부 돌은 대다수 왜성의 축조물로 변모하였다. 1731년(영조 7) 당시의 동래부사 정언섭이 동래읍성을 다시 쌓으면서 왜성의 성축은 다시 후기 읍성의 성돌로 바꾸어 부산지방의 다른 왜성은 그 흔적이 잔존하는데 비하여 동래의 왜성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봉래수창록』의 「동래부치도」는 임진왜란 시기의 동래읍성이 훼손되어 없는 시기에서 정언섭이 후기읍성을 쌓기 전의 상황을 세밀히 그린 것이다. 본고에서는 객사인 봉래관을 중심으로 동헌, 충신당, 내아, 완대헌, 동래 향교, 충렬 별사 등 동래부치 내의 건물과 지형을 비정하였으며 특히 당시 증산 아래에 짓고 있는 석빙고 등의 위치를 考究하였다. 시설 가운데 주요기관으로 단청이 칠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는 朱漆된 기둥으로 표현 한 것이라 추정하여 다수의 관아 시설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에 묘사된 관아의 건물 묘사와 위치가 『동래부지』의 기록과 비교하여 상당히 정확성을 띠고 있었다. 나무를 표현 하는 방법도 수간의 구성이 사실적으로 보이며 米點을 구사하는 필법에서도 숙련된 기량이 엿보인다. 농주산의 경우도 변박의 <동래부순절도>에서 처럼 나무에 태점을 가하여 나지막한 능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속의 관아건물 및 지형의 공간 배치가 정확할 뿐

아니라 동래부 무임화사 계열의 기록화에 나타나는 화풍들이 엿보이고 있어 「동래부지도」는 18세기 활동한 동래부 무임화사가 그렸을 개연성이 높다.

「동래부지도」는 현재 알려진 동래부의 회화식 지도로는 가장 앞선 시기의 작품에 해당되는 바, 동래부사 정언섭 축성의 동래성을 고구할 기본 자료는 물론, 동래부의 관아 시설의 변천을 살필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봉래수창록』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제를 덧붙여 고찰하였다. 향후 『동래부지』 「제영잡저」 편이나 여타 문사의 시집과 문집 등을 살펴 수록된 시문의 문학적 성격을 보다 심도있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래부지도」를 그린 동래부 무임화사와 필적과 글씨를 담당한 이중관이란 인물에 대해 밝혀내는 것도 추후 과제이다.

■ 2016년 7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30일 ■

참고문헌

<사료 및 도록>

『東萊群誌』
『東萊府邑誌』
『東萊府誌』
『東萊史料』
『朝鮮王朝實錄』

『東萊府先生案』(東萊府誌官案, 英祖16年 朴師昌編), 『港都釜山』 제2호, 1963.6.

<단행본 및 논문>

김기혁, 「부산 동래부 군현지도의 유형과 내용 분석」, 『한국민족문화』 제19·20호,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10, 333~375쪽.
김기혁·윤용출 외,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 -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0호, 대한지리학회, 2005, 1~26쪽.
김기혁·김성희,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경관과 변화 연구」, 『부산지역연구』 제10권,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2004, 27~49쪽.
김동철, 「東萊府使接倭使圖의 기초적 연구」, 『역사와 세계』 37, 효원사학회, 2010.6, 69~103쪽.
김동철, 「倭館圖를 그린 卞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Vol.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47-71쪽.
南春祐, 「鄭錫儒의 生涯와 詩世界」,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9.11, 33-52쪽.
박은순,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한국고지도연구』 제1권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31~61쪽.
손계영, 「조선후기 詩箋紙의 사용과 시전문화의 확산」, 『古文書研究』 제38호, 한국고문서학회, 2011, 187~209쪽.
송희경, 「조선후기 雅會圖-室內雅會圖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제24호, 2005, 139~168쪽.
안휘준, 「韓國의 古地圖와 繪畫」, 『海東地圖』, 서울대학교 奎章閣, 1995.
윤용출,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 제21호, 부경역사연구소, 2007.10, 183~228쪽.

- 이성훈,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전반 동래지역화단』 『미술사학연구』 제278호, 한국미술사학회, 2013.7, 97~123쪽.
- 이창현, 『性源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5.
- 이현주, 「기억이미지로서의 동래부 임진전란도-1834년작 번곤의 <동래부순절도>와 이시눌의 <임진전란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7,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87~321쪽.
- 이현주, 「동래부 화원 李時訥 연구」, 『역사와 경계』 76호, 부산경남사학회, 2010, 147~183쪽.
- 이현주, 「임진왜란 기록화, 순절도 연구」, 『임진왜란』, 부산박물관, 2012, 200~211쪽.
- 이현주,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화원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현주, 「조선후기 동래지역 화원활동과 회화적 특성」, 『역사와 경계』 83호, 부산경남사학회, 2012, 37~70쪽.
- 이현주,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18세기 東萊 在地畫員 下璞의 官需繪畫 연구」 『文物研究』 제14호, (재)동아시아미술연구학회, 2008, 165~211쪽.
- 이훈상, 「조선후기 지방과견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 『동방학지』 제14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12, 305~366쪽.
- 이훈상·손숙경, 『조선후기 동래의 武廳先生案과 武任총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 홍선표, 「17·18世紀의 韓日間 繪畫 交涉」 『考古美術』 143·144호, 한국미술사학회, 1979, 22~46쪽.
- 홍선표, 「화원의 형성과 직무 및 역할」, 『화원-朝鮮畫員大展』, 리움, 2011, 336~345쪽.
- 홍선표, 『朝鮮時代繪畫史論』, 文藝出版社, 1999.
- 『國譯 東萊府誌』 題詠雜著篇, 東萊文化院, 2000.
- 『國譯 萊營政蹟』, 釜山史料叢書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
- 『國譯 萊營誌』, 釜山史料叢書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 『기록화·인물화』, 동아대학교 박물관, 2016.
- 『東萊區誌』 釜山廣域市 東萊區, 1995.
- 『東萊府啓錄』(上), 釜山史料叢書3,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4.6.
- 『東萊府啓錄』(下), 釜山史料叢書4,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4.6.
- 『東萊府使 : 忠과 信의 목민관』, 부산박물관, 2009.
- 『東萊府事例』, 釜山史料叢書1,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3.9.
- 『東萊府誌』 (英祖16年, 朴師昌編), 『港都釜山』, 제1호, 釜山市事編纂委員會, 1962.
- 『東萊史料』 全3卷, 驪江出版社, 1989.
- 『東萊邑城』, 동래구청·동래문화원·경남문화재단연구원, 2008.

- 『東萊鄭氏校書郎公派世譜』, 東萊鄭氏校書郎公派譜所, 1994.
- 『東萊誌』, 東萊誌編纂委員會 · 東萊誌編纂委員會, 1983.
- 『東來鄉校誌』, 東來鄉校 編纂委員會 [編], 東來鄉校, 1997.
- 『東萊鄉土誌』, 釜山直轄市 東萊區 文化공보실 편집, 1993.
- 『東亞大學校 所藏品圖錄』,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1.
- 『釜山古圖畫集』, 동래문화원, 2008.
-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2008.
- 『소장품도록』, 부산박물관, 2006.
- 『임진왜란』, 부산박물관, 2012.
- 『충렬사 정화지』, 부산직할시, 1980.
- 『忠烈祠志』, 忠烈祠 安樂書院編, 2011.
- 『한국읍지총람』조선시대사찬읍지,21: 경상도편6, 한국인문과학원, 1991.
- 『韓國의 옛 地圖』,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Abstract

A Study of the Bongraesuchangrok and Dongraebuchido

Lee, Hyun-Ju

Bongraesuchangrok is a collection of poems and paintings containing 35 sheets of paper. It was arranged by *Dongraebu* Magistrate *Seokmyeong Cho* in March of the lunar calendar, 1725 and includes poetry with paintings the Magistrate and his acquaintances recited in *Dongraebu*.

On the opening page of the collection are large characters, *Bongrae* and *Suchang* by Diplomat *Seong Hong*, which is followed by *Dongraebuchido*, preface by *Seokyou Cheong* from *Seongju* and *Jaesa*, introductory remarks whose title is known by. In the body part of the collection, 55 poems by *Seokmyeong Cho*, *Seokyou Cheong*, *Seong Hong*, *Junmyeong Cho* and Monk *Jonggak* of *Boemeo* Temple were transcribed in the semicursive style of writing by *JungGwan Lee*. At the end was a postface by *Seong Hong*.

In 1725 (King *Youngjo* 1st year), *Dongraebu* Magistrate *Seokmyeong Cho* was thinking of withdrawing from his office of *Dongrae*. He made the collection for recalling the experiences in *Dongrae* later and hoping that offsprings of 4 families involved would read it.

Dongraebichido is especially noticeable in *Bongraesuchangrok*. While most known pictures of *Dongraebu* at this time are with the latter part settings of *Dongrae Eupsung*, this picture in *Bongraesuchangrok* reflects the time before *EonSeop Cheong* built the latter part settings of *Dongrae Eupsung* in 1731. Moreover, it was verified that governmental facilities and space arrangement in the picture are considerably accurate and realistic. There is a very strong possibility that the picture *Dongraebuchido* was produced by *Muimhwasan* in *Dongraebu*, given the fact that described governmental facilities are in great detail; the painting style of

Muimwhasa in *Dongraebu* in the 18th century is shown; its orderer is *Dongraebu* Magistrate.

This paper covers overall contents of *Bongraesuchangrok* with a bibliography. This collection is a very historical source not only for checking a poem recitation in *Dongrae* and the background of producing the collections of poems and paintings, but also for discovering new *Dongrabuhwasa*.

Key Words : Bongraesuchangrok, Dongraebuchido, Seokyou Cheong, Seokmyeong Cho, Dongrabuhwasa

